

## 이슈 브리핑

### 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EV) CSIS 연구결과, 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지난 15년간 321조원 지원
- (EV) 中 Leapmotor, Stellantis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개시
- (FCEV) Honda, 美 오하이오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첫 생산

### 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ADAS) 美 자동차 기업 연합, 새로운 AEB 규정에 이의 제기
- (자율주행) Uber-Aurora, '24년 말 텍사스 무인 화물운송 서비스 개시
- (SDV) 나고야 대학, 日 차량용 SW 개발 호환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

### 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Bosch) E/E 아키텍처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인력구조조정 추진
- (ZF) 안전 및 조향 시스템 R&D 기지 구축에 6,200만 달러 투자
- (Autoliv-UNRSF) 오토바이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갱신

##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### ◆ (EV) CSIS 연구결과, 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지난 15년간 321조원 지원

- 美 싱크탱크 CSIS는 중국이 '09년부터 '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지원한 금액이 \$2,308억(약 321조원\*)라고 추정했는데, 이 중 51%는 소비세 면제에 투입 (\$1,176억, 약 163.6조원)

\* CSIS는 해당 수치가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라며, 3가지 근거로 지방정부 보조금과 현지의 저렴한 전기·신용 거래·토지 비용, 그리고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(배터리 제조사 등)에 대한 보조금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언급

- 특히 지원 규모가 최근 크게 증가하여 '09~'17년까지는 연평균 지원 금액이 \$67.4억(약 9.38조원)였으나 '23년에는 \$452억(약 62.9조원)에 달한 것으로 추정

\* CSIS에 따르면 주된 지원 방식은 리베이트·소비세(10%) 면제·인프라 지원·R&D 지원·공공 조달 등 5가지인데, '23년에는 소비세 면제가 87.4%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2위는 R&D 지원(9.4%)

※ CSIS('24.6.20.) <https://www.csis.org/blogs/trustee-china-hand/chinese-ev-dilemma-subsidized-yet-striking>

### ◆ (EV) 中 Leapmotor, Stellantis 폴란드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개시

- Stellantis와 Leapmotor의 합작법인(JV) Leapmotor International은 Stellantis의 폴란드 공장에서 Leapmotor의 전기차 'T03'의 첫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발표

\* 주행거리 280km(WLTP 기준)의 소형차로, 폴란드 공장은 '24.9월부터 해당 차종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며 '25년 1분기에는 Leapmotor의 SUV 'A12'의 생산을 개시할 계획

- 당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폴란드를 생산기지로 낙점했는데, 폴란드 내 생산 비용은 차량당 €400~500(약 59~74만원)로 중국과 비슷하고 이탈리아(€1,000)의 절반 수준

\* Stellantis는 '23.10월 Leapmotor의 지분 21% 확보한 바 있으며, JV인 Leapmotor International의 지분 51%를 보유하여 Leapmotor 차량의 중국 외 생산 및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음

※ Automotive News Europe('24.6.17.) <https://europe.autonews.com/automakers/stellantis-leapmotor-jv-said-begin-ev-output-poland>

### ◆ (FCEV) Honda, 美 오하이오주에서 플러그인 수소차 첫 생산

- 'CR-V e:FCEV'는 'CR-V' 기반 플러그인 수소 SUV이며 배터리로 29마일(약 47km) 주행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차량 총 주행거리 270 마일(약 435km, 美 EPA 기준)

- 차량에는 수소 탱크 2개(총 용량 4.3kg)와 17.7kWh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연료전지(92.2kW)는 Honda와 GM의 JV인 FCSM이, 파워트레인은 獨 Vitesco Tech가 생산

\* 이번 차량은 美 내 수소 충전소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해 美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리스 형식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주로 일본 내 판매에 집중할 전망

※ Electrive('24.6.8.) <https://www.electrive.com/2024/06/08/honda-cr-v-efcev-production-us/>

◆ (ADAS) 美 자동차 기업 연합, 새로운 AEB 규정에 이의 제기

- 자동차혁신연합\*은 미국도로교통안전국(NHTSA)에 자동긴급제동시스템(AEB)의 속도 및 야간 규정\*\*이 현재 기술로는 실현 불가능\*\*\*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함

\*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: 42개 이상의 글로벌 완성차, 부품, 기술 업체가 속한 미국 자동차 기업 연합

\*\* '29년까지 4,536kg이하의 승용차·MPV·트럭·버스는 AEB를 의무화하는데, 최대 100km/h에서 앞차와 접촉을 피하고 정지, 앞차와 충돌이 임박하면 최대 145km/h, 낮·밤에 보행자를 감지하면 최대 72km/h에서 작동해야 함

\*\*\* '19년 AAA(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)의 AEB 연구에 따르면, 낮에는 32km/h에서 어린이 보행자를 감지하여 제동한 경우가 11%에 불과했으며, 4번의 모든 야간 테스트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여 제동하지 못함

- 연합 회장 John Bozzella는 NHTSA의 규정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의 예상보다 빨리 브레이크가 작동되어 더 많은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, 수정된 AEB 시스템이 운전자·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하지 못하는 동시에 가격은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함

※ The Wall Street Journal('24.6.24.) [https://www.wsj.com/business/autos/carmakers-file-challenge-to-parts-of-new-automatic-braking-rule-ebb653e9?mod=autos\\_news\\_article\\_pos1](https://www.wsj.com/business/autos/carmakers-file-challenge-to-parts-of-new-automatic-braking-rule-ebb653e9?mod=autos_news_article_pos1)

◆ (자율주행) Uber-Aurora, '24년 말 텍사스 무인 화물 운송서비스 개시

- '30년까지 Aurora Innovation\*의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한 10억 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Uber Freight\*\*의 화물 운송업체에 조기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여, '24년 말부터 텍사스주 델러스-휴스턴 노선에서 무인 화물 운송서비스를 시작할 계획

\*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로, 완성차·부품 제조업체, 화물 운송업체 등과 협력

\*\* 지능형 물류를 지원하는 화물 중개업체로, 화물 운송업체와 트럭 운전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, 자율주행 트럭 기술 회사 Waabi, Torc Robotics와도 협력하고 있지만 안전 운전자가 탑승함

- 이번 협력에 대해 Bloomberg는 Uber가 자율주행차 자체 개발에서,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식인 외부 업체에 플랫폼 개방으로 전환한다고 평가함

※ Bloomberg('24.6.25.)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4-06-25/uber-picks-one-ride-aurora-to-launch-driverless-truck-riding-in-texas-and-hydrich>

◆ (SDV) 나고야 대학, 日 차량용 SW 개발 호환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

- 나고야 대학교는 표준화된 Open API 구축을 통한 SDV의 효율적인 개발 및 시장 점유율 30% 확보를 목표로, Suzuki, Renesas Electronics\*, Tier IV 등 20개사와 함께 'Open SDV 이니셔티브'를 추진

\* '24.6월 Renesas는 SDV 개발 환경 'R-Car Open Access(RoX)' 출시

\*\* 이르면 '24.8월부터 이니셔티브 활동을 시작해, '25.3월 API 첫 번째 버전 출시 예정

※ Nikkei Asia('24.6.12.) <https://www.nikkei.com/prime/mobility/article/DGXZQUC203PU0Q4A620C2000000>

◆ (Bosch) E/E 아키텍처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및 인력구조조정 추진

- Bosch는 Microsoft와 차량내 생성형 AI를 통한 자율주행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협력하며, Qualcomm과 인포테인먼트 및 ADAS 기능을 동시에 처리하는 SoC\*를 개발

\* Bosch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100개 이상인 컨트롤 유닛 개수를 '30년까지 10개 미만으로 줄일 계획

- 또한 동사의 SW 전문인력은 현재 4.8만명으로 '25년 5만명까지 증원이 목표지만, 크로스-도메인 컴퓨팅 솔루션 부문 SW 엔지니어 1,200명 해고 예정으로, 이에 Digitimes는 Bosch의 향후 집중 분야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도함

※ Digitimes Asia('24.6.25.) <https://www.digitimes.com/news/a20240624PD212.html>

◆ (ZF) 안전 및 조향 시스템 R&D 기지 구축에 6,200만 달러 투자

- ZF의 수동안전시스템\* 사업부 ZF LIFETEC은 에어백, 안전벨트, 스티어링 휠 시스템 부문 국제 R&D 기지 구축을 위해, 미시간주 부지에서 6,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물 수리, 증축 및 모의 충돌 시험 장비 설치 계획\*\*

\* Passive Safety System: 사고 당시와 그 이후 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

\*\* 8.2만㎡ 신규 건물에 8메가뉴턴 모의 충돌 시험장비를 설치하고, 13.6만㎡, 12만㎡의 기존 건물 리모델링 예정

- ZF의 대변인은 이번 확장을 통해 ZF LIFETEC의 프로토타입, 엔지니어링, 첨단 테스트 서비스 및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, 제품 테스트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함

※ Automotive News('24.6.20) <https://www.autonews.com/suppliers/auto-supplier-zf-launches-62m-expansion-macomb-county>

◆ (Autoliv-UNRSF) 오토바이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갱신

- 자동차 안전 시스템업체 Autoliv와 유럽연합 도로안전기금(UNRSF)은 글로벌 오토바이 안전 강화를 위해, '22.4월 체결된 글로벌 도로 안전 강화 협력 갱신 발표

\*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발표한 [2023 도로 안전 글로벌 현황 보고서]에 따르면, 이·삼륜차의 수는 '11년과 비교해 '20년에 약 2.75배(175%) 증가했으며, '21년 세계 교통사망사고의 21%가 이·삼륜차 사고인 것으로 추정됨

- Autoliv-UNRSF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사이트·지식·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, UN 기관, 비정부기구(NGO), 기술 공급업체 등의 글로벌 도로 안전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

※ Autoliv('24.6.21.) <https://www.autoliv.com/press/strengthening-motorcycle-safety-autoliv-and-un-road-safety-fund-announce-renewed>